

광주·전남 학생수 5년 후 6만명 급감한다

2029년 초·중·고생 광주 13만3085명...전남 14만3670명 초1 '1만명 붕괴' 광주 내년 9760명·전남 2026년 9522명

출생인구 급감으로 광주·전남지역 초등학생 숫자가 2029년이면 올 현재보다 6만여명 격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4~2029년) 올해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수는 모두 16만2508명에서 2029년 13만3085명으로 2만9423명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지역 학생수도 올해 17만5335명에서 2029년 14만3670명으로 3만1665명이 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22년 공표한 초·중·고 학생 수 추계(2023~2029년)에서 2023년 실추치를 반영한 분석이다.

광주의 초등 1학년은 올해 1만720명에서 2025년 9760명으로 1만명선이 붕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초등학교 1학년도 올 현재 1만1218명에서 2026년이면 9522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전남 지역 학생 수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최근 5년 새 2만4991명이 감소(12.5%)했으며,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도 413개교로 전체 학교 수의 47.7%에 달한다.

재학생이 1명도 없어 휴교 중인 학교도 20개교(초 18개교·중 1개교·고 1개교)에 이른다. 이 중 5년 이상 장기 휴교 중인 학교는 7개교(35%)이다.

초등학생수 급감은 교원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광주교대의 졸업생 314명 가운데 157명이 임용고시를 통과해 합격률이 50%에 그쳤다.

학교별로 보면 10개 교대의 합격률은 서울교대가 62.0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교대 57.10%, 전주교대 53.9%, 진주교대 52.82%, 부산교대 52.58% 순이었다.

대학가도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6개 대학은 2024학년도 추가모집에서 591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광주 4개교, 전남 2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학교당 평균 미충원 인원을 보면 전남이 15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안 임자도 튜립축제 오세요

'2024 섬 튜립축제'가 신안군 임자도 튜립·홍매화 정원에서 열리고 있다. 10일 오전 관광객들이 형형색색 백만송이 튜립을 보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이번 튜립축제는 '누러라!!! 느껴라!!! 즐겨라!!! 형형색색 튜립으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14일까지 열린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성홍열’ 유행...손씻기 잘하세요

도 “고열·전신 발진...기침예절 등 안전수칙 지켜야” “65세 이상 고위험군 상처 부위 노출 최소화 하길”

전남도가 최근 일본에서 성홍열과 동일한 원인균에서 발생하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유행함에 따라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상처 부위 노출 최소화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 유행 기간에 발생이 줄었다가 2023년 941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도 2월 말까지 414명이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국내 STSS 의심 사례는 1건이다.

2023년 전국 성홍열 발생은 810건으로 전년보다 60.4% 늘었고, 전남에선 32건으로 전년보다 68.4% 증가했다.

STSS 초기에는 고열, 오한, 메스꺼움,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일어난다. 이후 중증으로 진행되면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악화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는 드물며 국내 발생이 매우 낮아 유행 가능성은 낮다.

STSS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고열, 발진, 저혈압, 근육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처가 발생한 경우 상처 부위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남도는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STSS와 동일한 원인균인 성홍열 전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침예절, 올바른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감염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해외여행객은 과도한 불안과 우려보다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풍력발전사업 예상된다고 공유수면 점유 불허는 위법”

신재생에너지 법인 ‘여수 해상 풍황계측기 설치’ 항소심 승소

해상 풍력발전사업 타당성을 가늠하는 장비인 ‘풍황계측기’를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다는 여수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신재생발전사업에 하는 A법인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유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법인은 지난 2022년 11월 여수시 삼산면 동측 약 10km 떨어진 공유수면(962㎡)에 ‘해상풍력발전 풍황계측용 라이더 고정식 해상플랫폼’(풍

황계측기)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풍황계측기는 풍향과 풍량 등을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장비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자료를 수집한다.

여수시는 어민(수협)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이고, 신청 공유수면이 다른 해상풍력 대상지 입지와 인접해 분쟁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설치를 불허했다.

A법인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법인이 신청한 풍황계측기 설치 위치는 중복되지 않으나, 유효지역인 5km 이내에서 타

업체가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태”라면서 “A법인이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사실상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원고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상 풍황계측기 설치가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사전단계라 하더라도 발전사업 신청기회를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 풍황계측기 설치 및 측정결과가 필수 요건인데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단계인 풍황계측기 설치를 불허한다면 발전사업 허가 신청의 기회도 차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말다툼 중 아버지 흥기로 찢른 고교생 체포

나주에서 말다툼 중 아버지를 흥기로 찢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나주경찰은 고등학생 A(17)군을 존속중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8시께 나주시 자택에서 아버지 B(61)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기에 흥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버지와 평소 자주 다툼을 벌였고, 이날도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어머니가 뒷날 건강상의 이유로 먼저 세상을 떠나 아버지 B씨와 단 둘이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원 기자 hey1@

60대 농부 트랙터에 깔려 사망

밭일에 나선 60대 농민이 트랙터에 깔려 숨졌다.

10일 화순경찰과 화순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화순군 도암면의 밭에서 A(67)씨가 트랙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마을 주민들이 A씨를 구호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트랙터에서 떨어져 깔린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가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가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가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